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5 0102

Vol. 109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신년기획_청양! 2015년을 기대한다! Medical point_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증축 개소!! Today INHA_ 혈액종양내과/두경부암 다학제 진료





06



24



32

인하대병원

Jan

+

Feb 2015 Vol.109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 한 걸음

- 04 **신년사**
- 06 **신년기획** 청양! 2015년을 기대한다!
- 09 **Health Point**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증축 개소!!
- 12 **Today INHA** 혈액중양내과의 다학제 진료 시스템
- 14 두경부암 다학제 통합진료
- 16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 18 **Health touch** 미리 준비하는 내 아이의 봄철 건강 챙기기

사랑 두 걸음

- 20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 골목이 품은 이야기 2 - 신흥동
- 24 **Special people** 뮤지컬 배우 손준호
- 26 **모르면 지는거다** 가장 아름다운 나눔, 헌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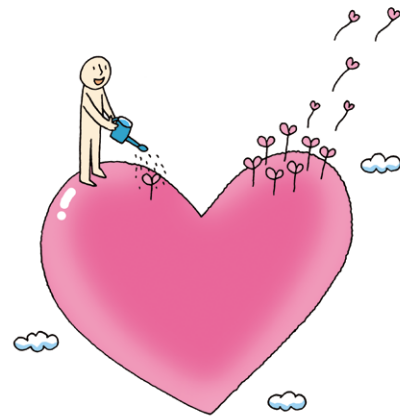
나눔 세 걸음

- 28 **Change the INHA** 환자안전 시리즈 ⑧ - 감염관리
- 30 **INHA Focus** 인하사랑 공모전 수상작
- 32 **인하섬표**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의 나눔 문화 실천
- 34 **특목 약물상담** 양성 전립선 비대증
- 35 **병원 탐방** 다정한내과 / 합정식 원장

INHA NEWS

-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38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 39 **Info desk** 건강교실 + 전시회 및 공연 + 파랑새 소식

우리 사이 인연의 끈



사람과 사람 사이, 수많은 끈이 이어져 있습니다.
 인연의 끈은 내가 상대방에게 던져둔다고 해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걸쳐 둔다고 해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서로가 이어진 끈을 잘 붙잡고 있어야 비로소 인연이 시작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끈을 잡고만 있을 게 아니라 간간히 풀도 먹고,
 잘 잡고 있나 당겨보며 확인도 하고, 관리도 해줘야 튼튼하게 갈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셀레다 글 | 알에이치코리아 | '내 마음 다치지 않게' 중에서



표지_ 값진 소통의 시간을 가진 김영모 병원장과 직종별 막내급 직원 5인 | 청양! 2015년을 기대한다! 좌담회

인천지역 보건 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대표병원으로!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 한 해의 계획을 설계하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 없는 계획은 시간 낭비 일뿐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병원경영 환경 악화 속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심뇌혈관센터 증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작년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유일하게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병원 브랜드가치를 향상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는 우리가 참여하는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건복지부 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였고 상급종합병원 재지정도 받았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유수의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하는 등 그 심사가 매우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난히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공공의료 사업지원단을 조직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천 지역의 보건 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의 대표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외래 환자 3,000명, 입원환자 800명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이뤄낸 성과는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며, 또한 올해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천지역의 거점병원이자 유일한 대학부속병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한 해는 적자 기초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권역심뇌혈관센터 증축과 외래 리모델링을 통하여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질환별 맞춤형진료서비스를 실행하겠습니다. 외형 확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료환경을 개선해서 환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또 환자들이 먼저 찾는 그런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병원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의료소비자인 고객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소비자인 고객들에게 의료의 질과 의료 외적인 서비스에 대해 만족을 주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위주 또는 교직원 위주 마인드에서 철저히 환자 위주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환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희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의 선택은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병원생존 그리고 우리 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조금씩 양보하고 또 희생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회란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일
의료원장 김 영 모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함께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인하대병원 앞에 열려있는 완생의 길!

순한 양과 생명을 상징하는 푸른색의 양이 만난 청양의 해를 맞아 인하대병원은 병원중추 완공을 앞두고 제2 도약의 기회로 힘찬 출발을 하였다.

김영모 병원장과 직종별 막내급 직원 5명이 함께 한 자리는 인하대병원이라는 '큰 판'에서 작지만, 빛나고 있는 자신만의 '바둑돌'을 찾는 값진 기회였고 서로를 읽고 듣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누구 한 명의 땀방울로 되고 안 되는 현실은 아니지만, 작은 바둑돌 하나가 큰 판을 움직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완생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

참석자_ 김영모 병원장 / 박현선 실장(기획조정실, 신경외과 교수) / 송준호 실장(대외홍보정책실, 신장내과 교수)

김형묵 인턴장 / 최유현 간호사 / 오나은 약사 / 정아영 방사선사 / 김승봉 사원(홍보팀)

진행_ 정리_ 이정희 에디터 포토그래퍼_ da view studio 송인혁 실장



인하대병원 역사상 최초, 소통의 좌담회

진행자 아마도 병원 역사상 병원장님과 부서별 직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좌담회 제의를 받으시고 흔쾌히 승낙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장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 발달하고 솔직해서 직선적이고 곤란한 질문을 하면 어찌지 하는 걱정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이 부서 간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 여러분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 타성에 젖은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병원의 '활력소'인 것입니다.

김승봉 사실 저는 부서 막내라서 지정을 받아서 나오긴 했는데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함께 모이는 것, 특히 막내만 모이는 것이 특이하다는 생각에 결심했습니다.

송준호 우리 김승봉 씨가 유일하게 병원장님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주먹 한 번 쥐어라, 웃어라' 등등 사진 촬영을 하며 명령(?)을 하는 직원일 겁니다.

일동 웃음

김형묵 저 역시도 병원 특성상 다른 직종끼리 모이는 일이 거의 없고, 각자가 일하는 공간에서만 있는 것 같은데 서로의 애로사항을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부서 간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될 기회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바둑이 있다'

진행자 모두가 많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입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1년을 조금 넘기신 병원장님 역시 남다른 각오였을 겁니다. 직장인의 절대적 공감을 끌어낸 드라마 '미생'을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바둑이 있다'라는 명대사가 나오기도 하죠.

병원장 병원장이 되고 보니 병원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조직임을 새삼 알게 된 자리였죠.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풀어가는 조율을 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가장 큰 임무는 병원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그만두지 않고 버티지 않겠어요? 지옥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죠(웃음).

박현선 우리 영상의학과 정아영 선생은 서로 나오겠다고 싸우다가(?) 선발된 건가요(웃음)? 전 여러분께 그런 게 궁금해요. 학생 때 꿈꾸던 병원과 막상 들어와 보니 추구하는 가치와 맞는지...

정아영 나이로는 막내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웃음). 좌담회 전 간략한 사전 질문지를 받아보니 단순히 일을 배우기 바빴지 병원 발전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병원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하지만 환자의 치료 목적이라는 하나의 결과물을 내는 거잖아요. 그가운데 나도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설레면서 좋았고 학생 때의 기대와 다르지 않게 좋았어요.



김영모
병원장

"저의 가장 큰 임무는 병원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그만두지 않고 버티지 않겠어요? 지옥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죠."



최유현
간호사

"저는 지난해 2014년 4월에 입사해서 현재 서 9병동의 막내 간호사인데, 여기서도 가장 막내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땐 동등하던 애기도 들을 정도여서 별명이 '뺨권'이었어요. 간호 병동에서는 '실실이'라고 불려요. 잘 웃는다 해서 지어주신 별명이고 애정을 갖고 불러주셔서 좋아요."

사회 새내기들의 불안감과 책임감,

'최선'은 학교 다닐 때나 대우받는 것,

직장은 '결과'만 대접받는 곳

김형묵 저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국의 현실이 흉부외과, 비뇨기과의 경우는 인턴이 없습니다. 우리 병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인턴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진행자 네, 이것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이죠.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간혹 혼란스럽고 당혹스런 경우가 있을 것 같네요.

병원장 맞습니다. 전국적인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흉부외과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고생

칭찬! 2015

하는 만큼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시스템의 부작용이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심지어 모든 외과 의사는 수입할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심각한 상황이죠.

박현선 병원장님 말씀에 제가 좀 보태자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의료교육이 참 아쉬워요. 외과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후 임상 실습을 받는 전공의가 인턴입니다. 전공과를 떠나서 의사라면 기본 응급처치는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내 전공 환자가 아니라고 해서 의사로서의 기본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물론 우리 인턴 선생들은 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 선배 의사 대부분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처음'이라는 자리에서 책임감과 불안함의 언저리에서 갈등하며 임상실습 과정을 지낸 겁니다. 또 이런 고민은 당연하다고 봐요. 입사 직후인 3월에는 더 많이 긴장되었을 겁니다. 바로 의료계의 미생이네요.

최유현 저도 첫 입사 할 때가 생각나요. 막상 임상에서 혼자 독립해서 15~16명 환자를 케어 하셔야 하는데, 장기 환자와 예리하신 분이 많은 신경외과 병동이에요. '못 보던 간호사네, 이번에 입사했구나' 등등 하는 말이 들리니까 괜히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몇 개월 되었고 나고는 묻는 환자, 보호자 간병인도 생각나요. 그러나 차츰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존심 상하고 주눅이 들기보다 몇 개월 되었다고 말하고 최대한 열심히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 정보를 주니까 보는 시선과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박현선 최 선생은 진술한 의료 마인드로 아주 잘 극복했네요. 난 처음이니까 이해해 달라 이런 입장이 될 때가 많을 수 있는데 내 몸을 맡긴 환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커버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지 우리는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해요. 전문 자격증을 이미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내 일에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송준호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약사 간호사 면허를 가지는 순간 독립된 개체로 자기 일에 자기가 책임을 저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내 일의 책임을 지는 그런 직원이 되어야겠어요.

나만 힘든 것은 아니었다! - 서로의 소통과 배려

김승봉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을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의 공동목표인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행정직원들이 바닥에서 뛰고 있다는 것이 문힐 때 간혹 아쉽습니다. 많은 선생님은 이해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단순한 한 건이 아니어서 수많은 사람의 절결과 의사결정 집약, 이해관계 반영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잘 이해 못 하시고 반감을 표현하는 경우 많이 아쉽습니다.

김형목 인턴장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4년 입사, 현재 인턴장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학년 중에서 나이는 가장 어린데 팔방미인처럼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서 별명은 '슈퍼키드'입니다."

정아영 방사선사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에 2012년 입사해서 현재 일반촬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번째 막내입니다. 직원 식당 플래카드에서 사진으로만 병원장님을 보았어요. 오늘 처음 실물로 뵈게 되었네요."

송준호 맞는 말 이예요. 저 역시도 의사만 하다가 직책을 갖고 1년 반 정도 행정을 하다 보니 여러 직종이 있지만 장난스럽게 볼 일이 아닌 일이라는 걸 느꼈어요. 의사만 밤새우면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구나, 간호사만 3교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장 장그래 명대사 중에 '보이는 것이 보여지기 위해 보이지 않는 영역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환자의 완치에는 수술을 잘한 것도 있지만, 수술이 잘 되기까지 마취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빨리 입원시키는 행정이 있고 기타 등등 여러 분야의 집약에서 나온 결과이죠. 그런 노고를 생각할 수 있는 배려의 문화가 더

오나은 약사



"2012년 입사했고 나이로는 제일 어린 막내입니다. 별명을 꼭 밝혀야 한다면... 걸어 다닐 때 좀 거만하게 걷는다고 해서 '오여사' 라는 별명이 있어요."

김승봉 사원



"2011년 입사,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벌써 느껴지는 것처럼 '봉'을 활용한 별명이 많습니다. 봉봉, 빅봉, 그리고 최근엔 '봉그래'로 불리고 있죠."

성숙해져야 할 겁니다.
오나은 요구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팀장님에게 건의하고 하곤 했는데 병원이나 다른 부서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팀장님께서 그런 수밖에 없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은 이제, 고객의 건강을 위한

우리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아영 14년도는 '안전불감증' 으로 많은 대형사고가 있었죠. 저희 부서는 포터블을 들게 되는데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등은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죠. 방사선에 많이 민감해 있는 만큼 많이 줄여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병원 전체가 이런

마인드를 갖는 한해가 되었으면 해요.
병원장 병원에서처럼 안전이 강조되는 조직은 없죠. 내년에 3번째 JCI 재인증을 받는 것도 환자 안전시스템 확보를 위한 우리 병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전한 병원 중에 하나라고 확신으로 모두가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오나은 병원에서 투약구가 내원 환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거쳐 가는 곳인데 오래 기다리다 보면 컴플레인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땐 '아까부터 기다리셨죠?' 하면서 마음을 알아드리면 좀 풀리긴 하세요. 저희 부서도 노력하겠지만, 병원 차원에서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최유현 저는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 붙어있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환자의 지식도 높아지고 환자 자신이 받아야 하는 간호의 질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저는 '간호사인 내가 제일 힘들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환자를 대하는 제 마음도 훨씬 여유로워질 것 같네요(웃음).

김승봉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한 영화에서 주연을 빛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조연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전 병원에서의 주연은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조연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위해 낮은 자리에서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목 오랜만에 병원 증축을 하니 뿌듯합니다. 외형적인 하드웨어만큼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친절한 말 한마디 더 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내원객들에게 '정말 나를 고객으로 대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장 병원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역시 대단한 활력소입니다. 옛날처럼 병원이 치료만을 제공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아프기 전에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고객인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자기가 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하는 시대이고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 병원이 한창 공사 중이어서 출입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를 감수해 주시는 내원객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도 감사합니다. 저도 병원장으로서 드라마 미생의 명언처럼 세상 밖 지옥으로 여러분이 내몰리지 않고 '행복한 버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내 말만 해서 바둑을 이길 수 없다' 고 한다. 오늘 이 시간은 상대를 읽고 듣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누구 한 명의 땀방울로 되고 안 되는 시절은 아니지만 또, 작은 바둑돌 하나가 큰 판을 움직일 수 있음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으리라. 완생의 길로 가까워지기 위해 지침 없이 버티는 인하대병원이길 소망한다.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증축 개소!!

2015년 3월 16일
소중한 생명 지키는 마음으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치료·재활·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INHA UNIVERSITY HOSPITAL
INCHEON REGIONAL
CARDIOCEREBROVASCULAR
CENTER



예방관리센터

인천권역이 직면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교육과 홍보활동을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지역주민 기반의 교육홍보사업과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 환자, 보호자 대상 맞춤형 교육
 - 퇴원환자 대상 건강상담 · 지원 콜센터 운영
 - 맞춤형 환자 교육용 책자 · 영상물 자체 제작
 - 퇴원환자 보호자 대상 간병술기교육센터 설치운영
- 지역주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 심뇌혈관질환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마케팅

인하대병원은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증축을 통해 환자들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적인 치료시설과 최첨단 장비를 확충하여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성 질환은 발생 시 신속한 진료가 최우선으로 가까운 전문병원으로 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정부는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인하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다학제적 협진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치료·재활·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혈관센터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해 365일 24시간 심장내과 전문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혈관질환 발생의 조기치료, 예방 및 재활을 포괄하는 전문적 센터를 구축하여 심혈관 환자의 사망률 감소 및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4시간 365일 전문진료체계 구축 · 운영
- 교수급 전문의 병원 내 상주
- 심근경색환자 관상동맥 조영술
- 지역 의료기관 대상 심근경색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 지역 보건의료인 대상 전문지식 및 술기교육
- 환자/보호자 대상 맞춤형 교육



심뇌재활센터

급성기 심뇌혈관질환자 환자에게 조기에 재활치료를 실시하여 심근경색 및 뇌졸중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최대한 향상시켜 가정과 사회로의 조기 복귀를 돕습니다. 재활센터의 의료진은 의학적인 범주를 넘어 일상생활 및 직업에서의 통합적 영역까지를 포함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주고 행동하는 센터로 든든하게 인천권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한 조기재활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인천 유일의 심장운동치료실 운영
- 지역 의료기관 대상 심뇌혈관질환 집중재활치료 표준진료지침 개발
- 지역 보건의료인 대상 심뇌혈관질환 재활교육
- 보호자 및 간병인 대상 심뇌혈관질환 재활관리 교육
- 환자, 보호자 대상 맞춤형 교육



뇌혈관센터

급성기 뇌졸중 환자 치료를 위한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 당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뇌졸중 치료실 운영과 표준 진료지침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뇌혈관 환자의 사망률 감소 및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4시간 365일 전문의 진료운영
- 교수급 전문의 병원 내 상주
- 인천지역 최초 뇌졸중 치료실 설치 확대 운영
- 지역 의료기관 대상 뇌졸중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 지역보건의료인 대상 전문지식 및 술기 교육
- 도서 지역 뇌졸중 진료지원
- 환자, 보호자 대상 맞춤형 교육

어느 주말 아침, 딸 채원이(7세)는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다. 흠뻑 보니 그림 제목이 '다학제를 합시다' 아닌가? 나는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응, 그것은 환자 한 명을 두고 여러 의사가 모여서 각자 치료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나서 환자를 치료하는 거야. 엄마가 저~ 저번에 다학제 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생각나서 그린 거예요.”

다학제 진료를 하면서 나는 환자를 대하는 것이 즐겁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의료진들에게 보여주는 만족감과 신뢰감이 좋고 마주앉아 의견을 나누다 보니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서 즐겁다.

글_이문희 교수 / 혈액종양내과

“똑같은 위암 환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 선택

인하대병원의 암 환자를 위한 다학제 진료팀 재정비

미국연수를 마치고 2013년 5월 나의 환자들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에 긴장과 흥분되는 묘한 감정이 생겼다. 연수를 떠날 때 좋지 않은 많은 환자를 남겨두고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슴 한쪽이 시려오고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다.

때로는 서로 말없이 손만 잡고 있기도 한 이들은 나에게 더 이상 주치의와 환자로서의 관계가 아닌 분명 그 이상의 관계였다. 다행히 나를 대신해 고생해준 우리 혈액종양내과 동료 교수들의 노력으로 많은 환자를 다시 만날 수 있어 반갑고 감사했다.

내가 미국 연수에서 제일 부러웠던 것은 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여러 의사가 유기적으로 모여 토론하는 문화였다. 이미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최상이며 한국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조차 부러워하고 있을 정도로 훌륭한 제도이다.



연수를 마치고 얼마 후 “다학제 암 진료를 위한 유관학회 공동심포지엄”이 있다는 메일이 왔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다. 다학제 암 진료는 모든 혈액종양내과 의사들이 바라던 것이고 국회의원 설득과 공청회를 열어 제도화하겠다는 답을 냈지만 시행 시기는 미지수였다.

첫 공동심포지엄이 열리고 1년 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인하대병원을 찾아온 암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기존에 있던 다학제 진료팀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팀을 가동하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다.

함께 손잡고 가보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치료한 후의 보람

종양내과는 (1) 암이 의심되는 시점부터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환자가 덜 아프고 덜 고생하면서 진단을 내릴 것인지? (2) 진단이 내려졌다면 우선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항암치료 또는 항암치료와 방사선 병용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3)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고 방지하도록 환자를 교육하고,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4) 치료종료 후에도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주요업무 중의 하나이다.

일반사람들이 종양내과를 맡기 암 환자 즉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분야로만 인식할 때면 쓸쓸해진다. 이런 분들이 나에게 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치료해서 좋아지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몸에서 엔도르핀이 샘솟는 것을 느끼고 의사로서 힘들었던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다. 내가 환자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쪽 어깨를 빌려주며 기대라고, 함께 손잡고 가보자고 한 것 뿐인데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보람을 느낀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마다 각각 다른 경과와 치료반응

암이 재발했다고 해서 희망이 없고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일찍 종양내과로 오셨다면 더 많은 치료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경우도 있다. 종양내과에서는 표준치료 즉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테두리에서 시행하는 치료만이 아니라 새로 나온 신약에 대한 임상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 시판되지 않았을지라도 연구를 통해 좋은 효과가 입증된 약으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다양한 표준치료 중에서 환자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잘 선택한다면 생존의 연장과 아울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오래전 나의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 중 “위암 환자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진료실에 들어오는 위암 환자는 각기 다 다르다. 똑같은 위암 환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신 것이 나의 가슴에 두고두고 남는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마다 각각 다른 경과와 치료반응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뜻일 것이다.

암 환자들은 수술 후유증보다 항암제 후유증을 미리 걱정하거나 실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환자가 자신의 명의를 수술의사가 아닌 종양내과 의료진을 꼽았는데 그 이유가 ‘약 때문에 아프다’ 라고 말하는 암 환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줬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종양내과 의사는 항암제 처방과 부작용, 대처방안 등에 능통하여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상세히 설명해주고 대

처할 수 있게 해주며 부작용이 나타날 만한 상황의 환자에게 피해갈 수 있는 치료법을 안내해준다. 또한,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차이, 또 최신 약제까지 항암제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종양내과 의사들은 환자가 던지는 막연한 질문에도 진심으로 고민하며 성심껏 대답해줄 것이다.

종양내과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진료과다. 늦게 도입된 탓에 의사수도 적고 그만큼 의료계 내 영향력도 크지 못했다. 지금 종양내과가 마주한 국내 의료계 내 폐쇄적인 구조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의 과거 모습이다. 우리보다 몇 십 년 앞서 종양내과를 들여온 미국도 우리처럼 내부적 통풍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전공의로 있던 때에 비하면 종양내과 규모가 커지고 환자들이 종양내과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의사가 아닌

내가 환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작년 8월부터 약 4개월간 다학제 진료를 하면서 나는 환자를 대하는 것이 더욱 즐거워졌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의료진들에게 보여주는 만족감과 신뢰감이 좋았고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로부터 다른 분야에 대한 최근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서로 마주앉아 의견을 나누다 보니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즐겁게 해준 것 중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점은 내가 나의 동료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공고해짐에 따라 그들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봉사과 헌신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보다 많은 진료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진료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회의, 학회참석, 논문 등의 외적인 기대수준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학제를 위한 진료시간을 더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가 된 순간 분명히 남다른 각오를 했으리라 본다. 어느 외과 선생님의 말씀처럼 “측은지심”을 가지면 많은 것들을 행동하고 이해하기 쉬워진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의사가 아닌 내가 환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자는 말이 요즘 시대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닌가 한다. 아픈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견 통합하는 '다학제 진료'로 최적의 치료 가능



두경부암의 다학제

선택적 적용 & 개개인의 맞춤형 암 치료

66세 김후정(가명) 씨는 최근 목에 점점 커지는 임파선 때문에 본인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였다. 초음파를 이용한 조직검사 결과 임파선은 전이된 암이었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 그 암의 원발부위가 혀에서 발생한 '설암암'을 확인하였다. 설암이 진단된 다음날 김후정 씨는 암 치료를 위한 두경부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 이비인후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성형외과로 구성된 두경부암 치료 전문의로부터 향후 치료 의견을 들었다. 보호자인 부인과 다른 가족들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여러 의료진의 의견을 듣고 자유롭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종 상의하여 최선의 치료라고 판단되는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였다. 의료진의 설명으로 환자는 바로 입원 후 수술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김후정 씨는 다른 문제 없이 회복 중에 있다. 수술 후 결과에 따라 김후정 씨는 추후 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도록 의료진으로부터 권유받았다.

글_ 임재열 교수 / 이비인후과

구내염 3주 지속된다면 검사해야

설암은 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구강암으로 혀의 옆면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어느 위치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40세 이후, 6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설암은 유전적인 영향과 과도한 흡연과 음주, 구강의 위생 저하가 주 발생 원인으로 알려졌고, 틀니 등에 의한 만성적인 자극과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방사선이나 자외선, 식습관과 영양결핍 등의 부가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증상은 보통 입안의 궤양으로 나타나는데 단순 구내염의 경우 대개 1~2주 내로 없어지지만 3주가 지나도 지속된다면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 혀에 적색 혹은 백색 반점이 생긴 경우에도 암의 초기 증상이거나 암으로 변하는 전 단계일 수 있으므로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반점이 최근에 더 두꺼워지고 헐거나, 범위가 넓어진다면 조직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설암이 임파선으로 전이된 경우는 임파선이 목에서 만져질 수 있다. 진단은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구강 검진과 조직 검사로 결과를 얻는다. 조직검사 후에는 설암의 병기를 측정하기 위해 경부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등을 시행한다.

혀의 절반 이상 절제할 경우, 다른 부위 살을 옮기는 재건술도 함께 수술적 절제가 가장 중요한 치료로 알려져 있으며 조기 설암의 경우, 종양과의 경계를 충분히 확보하여 암을 절제하고 봉합하며, 혀의 반 이상을 절제할 경우에는 다른 부위(팔, 다리 등)에서 살을 옮겨 이식하는 재건술을 성형외과와 함께 시행한다. 수술 후 정상적인 부분이 남아 있을 경우 발음이 약간 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사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경우에 전이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목의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이 동시에 시행되기도 하며 수술 후 방사선 치료나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기도 한다. 항암 화학요법은 최근 진행성 설암에서 방사선 치료와 함께 수술을 대신하는 치료법으로 사용되거나, 수술을 보조하는 치료법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설암의 완치율은 조기 진단을 받고 치료한 경우에 가장 높으며, 종양이 혀에 국한되고 2cm 이내의 작은 크기인 1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95% 이상 완치된다. 2기(혀에 국한되고 2~4cm 크기)에 치료하면 약 70~80% 정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다학제 치료 - 최선의 치료에 대한 열의와 정성

환자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직접 설명하는 다학제 치료가 설암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다학제 진료는 일정 협의가 빨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혹여 놓칠 수도 있는 주요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어 안전하고 질 높은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암의 두려움을 줄여주고 치료에 대한 판단을 쉽게 이해시키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준다. 다학제에 참여하는 의료진 역시 환자 및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환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는 최선의 치료에 대한 열의와 정성을 가지게 한다. 모든 암이 그렇지만 특히 두경부암은 생김 부위와 병기,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암 치료법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적용해야 하는

어려운 치료의 대상이다.

두경부암의 치료는 일반적인 의학적 병기설정 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후 예상되는 부작용과 합병증, 환자의 삶의 질, 다른 만성질환(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의 유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혀의 주변에는 다양한 구강 내 구조물(볼, 치아, 편도, 구개 등)과 호흡과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두와 음식의 통로인 식도 입구가 인접해 있다. 따라서 설암의 수술적 치료에서는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호흡 및 발성, 연하 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의견 통합 필수 다학제가 가장 필요한 '설암'

이러한 이유로 설암은 다양한 수술적 술기와 방사선치료, 화학항암 치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판단을 보다 합리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의견 통합이 필수적이므로 이는 다학제 진료가 가장 필요한 분야이다.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상태와 혀 주변조직의 기능적 상태는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환자의 치료를 의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치료를 받을 수도 있기에 의료진의 편견과 편향은 진료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편향된 치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편견을 극복하는 새 진료의 패러다임이 다학제 진료이다. 의료진 간의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실제 환자의 검사결과를 보면서 세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기 때문에 최적의 치료 방안을 찾을 수 있고 설사 암이 완치되더라도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학제 진료를 할 수 있다.

예로 치료 후, 외형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또는 숨을 쉬는 문제, 발성의 문제,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성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다.

본원의 두경부암 다학제 진료는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암 치료의 선택적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개개인의 맞춤형 암 치료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고정화된 진단과 치료에서 벗어나 환자 개인이 가진 위험 요소의 발견에서부터 환자의 육체적 상태, 진단과 치료, 재활에 이르는 광범위한 치료의 과정을 아우르는 웰빙 치료가 될 것이다.

●문의 : 이비인후과 ☎ 032-890-2420

간병 부담은 줄어 들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대학병원 유일”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운영



2015년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당신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인하대병원에는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 사업에 이어,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대학병원의 최상급 입원서비스를 국가에서 지정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적용받을 수 있다. 보호자 없이도 전문간호사가 24시간 간호하는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3년 7월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포괄간호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확보와 환자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하대병원 포괄간호 병동은 간호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충원하여, 병동 내 모든 환자에게 보호자의 상주가 필요 없는 포괄적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전문 간호인력이 기본 간호부터 환자의 정서적인 지지와 의학적 지식 요구도가 높은 전문 영역의 간호까지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원료

포괄간호 병동은 간호인력이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해소된다.

현재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에 6인실 공동 간병은 2~3만 원, 4인실 공동 간병은 3만 원, 개인간병은 7~8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새로운 입원서비스로서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지불하면 되므로 현행 입원료의 본인 부담보다 하루에 5,120원~13,200원 정도의 추가부담을 하게 된다.

입실 환자 기준

- 진료과 담당 주치의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제반 사항이 포괄간호병동 입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 포괄간호병동 입실 당시 수술, 시술, 상태악화 등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입실 제외 기준

- 정신과적 문제, 소아, 임신부 제외
- 보호자 상주를 요구하는 중환자(1:1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격리환자·산재·자보·일반·외국인 환자(건강보험 무자격자)
- 요양 목적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환자

재원일수

- 포괄간호 병동 입원 후 2주 제한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입실절차



퇴실

- 치료계획에 따라 주치의가 퇴원을 결정한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일반병동으로 이동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 환자의 증상변화(예: 의식/활력 증후 변화 등)로 일반병동, 격리병동, 집중치료실로 옮겨야 하는 경우
- 의학적으로 입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실을 거부하는 경우

인하대병원은 2013년 7월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 당시에도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참여하여 환자 편의와 감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철학을 바탕으로 국가보건정책의 조기정착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열고 언제나 눈앞의 이익보다는 진정으로 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참여한 운영결과와 발전방향 제언을 바탕으로 ‘롤 모델’을 제시하였다.

● 포괄간호서비스 신청 및 문의 ☎ 032-890-2333

미리 준비하는 내 아이의 봄철 건강 챙기기

입춘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완연한 봄 날씨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겨울의 문턱을 지나 봄기운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이번 3월에는 몇 차례 꽃샘추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찾아지는 야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 설레는 마음이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건 아직 겨울 같은 봄날씨, 환절기라고 불리는 이때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입학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빠진 예방접종 점검도 하도록 하자.

글 김동현 교수 / 소아청소년과

예방접종

• 새 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의 나이에 맞춘 예방주사를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유행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의 나이에 따라 권장되는 접종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빠진 접종 혹은 지연된 접종인 경우 접종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더 짧은 간격으로 접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챙겨야 할 백신이 있는지 소아감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국가별, 시기별 권장 백신이 있어도 접종이 가능한 나이 인지 확인을 하고 최소한 출국 2~3주 전에는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감기와 독감

• 감기는 봄철에 흔한 질환 중 하나로, 입학이나 개학으로 학교생활이 시작되면 감기 환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급성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콧물이나 코막힘 등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한 대개 7~10일 이내에 가라앉는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감기에 걸릴 경우 25~40%에서 다른 가족도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신체적인 접촉이나 기침 시에 분비물로 인하여 전파 되기 때문에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심할 경우 진료를 받고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감기와는 다르지만 지난겨울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가 예년의 경우

보다 늦게 늘기 시작하여 봄철까지 발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고열과 기침, 인후통, 두통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장염

• 지난 겨울부터 인천 지역에 노로바이러스 장염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나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토와 발열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탈수에 빠지게 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어도 6개월 이내에 면역력이 상실되므로 유행 때마다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없고 백신도 없으므로 예방이 최우선이다. 음식은 가능한 85℃ 이상의 온도로 1분 이상 가열하여 섭취해야 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외선

•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만큼 봄볕이 가을철 햇볕보다 피부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봄볕은 겨울 동안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던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가을은 이미 여름 내내 자외선에 단련되어 있는 피부에 그 영향이 적다고 볼 수도 있겠다. 겨울철 어린이들이 실내 활동을 주로 하다가 봄철 자외선에 과다 노출될 수 있으므로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모자를 씌우는 것이 좋다. 기상청에서 자외선지수를 매일 발표하고 있으니 지수가 높은 시간대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평소 비타민 A, C, E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 등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견과류는 어린이의 경우 흡입될 위험이 크므로 피해야 한다.

알레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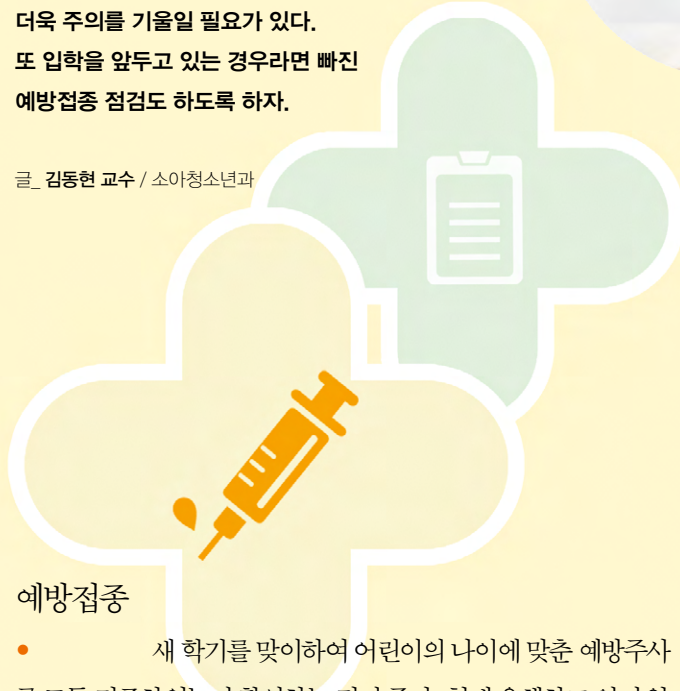
•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동물의 털 등 여러 항원에 의해 발생하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을 증상으로 한다. 봄철에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자주 발생한다. 천식은 여러 자극때문에 기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질환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봄철은 특히 알레르기를 예방하

기 위한 환경 조절이 필요한데 의자, 카펫, 두꺼운 커튼 등을 치우고 먼지가 많은 담요나 의복 등을 벽장에 두지 않는다. 환기를 자주 하고 실내청소 중이나 끝난 후에 환자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털로 된 장난감은 치우고 어린이가 치우는 것을 싫어한다면 삶는 것이 좋고, 삶은 수 없는 것이라면 냉동실에 얼린 후 야외에서 털어 사용할 수 있다. 실내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동물에 알레르기가 확인된 경우 실내에서 키우지 않도록 한다. 먼지가 많이 날 경우 마스크를 사용한다.

야외 활동

• 산행을 하거나 풀밭에 앉는 경우가 많은 봄철에는 유행성 출혈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유행성 출혈열은 한탄바이러스에 의해 옮기는 감염병으로 들쥐 등의 배설물에 들어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수풀에 베이거나 긁힌 상처를 통해서도 옮길 수 있다. 가능하면 풀밭에 앉거나 눕지 말아야 하며, 특히 잔디가 곱다고 맨발로 다니는 것은 금물이다.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풀밭이나 잔디에 이불을 널어 말리지 않아야 하며, 야외에서 돌아온 뒤에는 반드시 옷을 털고, 가능한 한 세탁하는 것이 좋다. 벌레에 물리면 가려워 어린이들은 더 심하게 긁게 되는데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긁다 보면 세균으로 2차 감염돼 긁기 쉽다. 벌레에 물린 곳은 손을 대지 말고 연고 등을 발라주는 것이 좋다. 어린이 중에 벌레에 물릴 때마다 부종, 물집, 발작 등이 심하게 나타나면 곤충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을 찾는다. 벌에 쏘인 경우 피부를 확인해 침이 있으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을 손으로 잡아 빼려 하지 말고 칼끝 등으로 침이 박힌 반대방향으로 밀면서 제거해야 한다. 벌에 쏘인 자리에 얼음찜질을 하면 부기와 통증을 바로 가라앉힐 수 있다.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므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 구토, 현기증 등의 증세가 있으면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한다.

겨울의 끝자락 2월, 아직은 겨울철인 만큼 다른 계절보다 어린이의 활동량이 줄어있는 상태이다. 봄 같은 2월이라고 갑작스러운 야외 활동으로 외상을 입지 않도록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겨우내 움츠렸던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봄철을 맞아 생기는 일종의 피로로 춘곤증이 발생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므로 충분한 수면과 비타민 섭취가 도움이 된다.





피고 지고 또 피고...

그렇게 꽃처럼 흘러간다

한때 일본 동네였던 신흥동 골목을 걷다보면 국치(國恥)의 흔적이 곳곳에서 배어난다. 동네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이 지킨다. 그들은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남아있는 거리와 가옥에서 불현듯 일본인의 탐심과 욕정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신흥동에 수인선의 종착역을 만들고 수탈의 철길을 깔았다. 그 길을 따라 조선인의 울분과 탄식이 실려 왔다.

글·사진_ 유동현 / 인천시 '굿모닝 인천' 편집장, '골목, 살아지다' 저자

담쟁이 넝쿨처럼 퇴락하고 있는 창고거리와 적산가옥

신흥동(新興洞)은 글자 그대로 '광복을 맞아 새롭게 발전하고 부흥하자'는 뜻에서 그 이름을 얻었다. 이전의 동네 이미지를 벗어 버리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광복 당시 곳곳에는 적산(敵産)가옥 등 왜색풍의 건물이 즐비했다. 대표적인 건물이 정미소 쌀 창고였다. 옛 도립병원(현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인역 인근에는 가동(加藤)정미소, 역무(力武)정미소 등 크고 작은 정미소가 있었다. 1930년대 일제는 경기도 이천, 여주 등 곡창지대의 쌀을 이곳에서 정미한 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수인선 협궤열차의 기차길을 창고 안까지 연결시켰다. 현재의 삼아아파트 부근까지 바닷물이 밀려들어왔는데 정미소에서 나온 누린 왕겨가 영종도 앞바다까지 등등 떠다녔다고 한다.

한때 쌀가마니가 가득했을 빛바랜 물류 창고 한 군데를 들어가 보았다. 옛 모습 그대로 삼각 구조를 한 여러 개의 나무가 천장을 지지하고 있다. 창고 주인은 이 창고가 80여 년의 풍상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창고 거리 부근에는 없어진 한 면을 담벼락 삼아 살고 있는 집들도 종종 눈에 띈다. 신흥동 창고거리는 붉은 벽돌에 말라비틀어져 달라붙은 담쟁이 넝쿨처럼 그렇게 퇴락하고 있다.

창고 뒤편으로 가면 곳곳에 일본식 집들이 모여 있다. 1920년대 일본인들이 문화주택이라고 부르며 지었던 집들로 광복이 되면서 적산가옥으로 등재되었다. 적산(敵産)가옥은 말 그대로 적의 재산으로 일본인들이 남겨 놓고 간 집들이다.



↑ 공설운동장에 집결한 입대 장정들. 그들은 수인역 인근 남부역에서 입영열차를 탔다.

었다. 인천부사에 의하면 '1905년 일본인이 창업한 인천탄산수제조소가 미국식 제조기와 5마력짜리 발동기를 사용해 사이다를 생산했다'고 전한다. 그 자리에는 현재 '동인당'이라는 골동품을 파는 가게가 들어서있다. 광복이 되자 인천탄산수제조소는 (주)경인 합동음료로 회사명을 바꾸고 '스타사이다'라는 이름의 사이다를 생산했고 이는 훗날 칠성사이다로 이어진다. 1960년대 코미디언 고(故) 서영춘 씨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뿌(컵)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라는 일명 '사이다송'을 불렀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뚝뚝 떠다녔다는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인 듯하다.

논산훈련소행 입영열차에 몸을 실었던 '수인역'

시아에서 사라지는 열차의 끝을 보면 슬프다. 내 사람, 내 물건을 싣고 가는 것도 아닌데 아득한 곳으로 기차를 떠나보내고 나면 공허함이 몰려온다. 신흥동 수인역에 가면 마치 등 굽은 노인네 같은 노쇠한 철길 때문에 슬프다.

수원, 군자, 소래 등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이 키운 닭이며 각종 곡식을 이고 지고하며 수인역에 내려놓았다. 금방 큰 장이 서고 거래로 왁자지껄 소란해졌다. 장이 서는 동안 열차 맨 앞 기관차는 거대한 회전기를 이용해 다시 수원 방향으로 놓여진다. 그렇게 수인역

은 번창했다. 1979년 종착역이 송도로 변하면서 급격히 쇠락하였다. 이제 수인역은 젊은 택시기사들은 그 위치를 잘 모를 정도로 도시의 뒷무대로 한발짝 물러앉아있다.

예전에 이 부근에서는 다른 호각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인근 남부역은 입영 열차 정거장이었다. 70년대 말까지 수많은 '청춘'들은 이곳에서 출발하는 논산훈련소행 입영열차에 몸을 실었다. 공설운동장에서 집결한 장정들은 송의로터리를 지나 이곳으로 이동했다. 부모와 형제, 친구들과 마지막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리느라 미처 열차에 몸을 싣지 못하자 호송관들의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울렸다. 달경, 기차는 긴 기적을 한 번 울리더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열차가 주인선으로 접어드는 순간 호송관들의 살벌한 고함소리와 동시에 열차안은 금방 균기 바짝 든 훈련소로 변했다.

인천 최대의 농산물 깡시장이었던 수인곡물시장

열차 때문에 생긴 시장은 그 명맥을 이어 가고 사람들도 남아있다. 곡물상과 고추집 그리고 기름 짜는 집 등 40여 개의 점포가 신광초교 담벼락에 기대어 '수인곡물시장'이란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지금의 한별아파트 자리에는 인천 최대의 농산물 깡시장이 있었고 이후 김치공장과 농협 하나로마트가 개장하는 등 농산물과 관련된 시장이 계속 이어져 왔다. 이제는 연백상회, 개풍상회, 충남

상회 등 고향을 가게 간판으로 내건 곡물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전만 못해. 대형마트 때문이야. 그냥 심심하니까 가게 문을 열고 있는 거지."

충북 영동에서 올라와 한자리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 흥진상회 이영주(81) 할아버지는 "곡물이란 이름 붙은 곡식은 다 있고 다른 데보다 30% 정도는 싸다"고 설명하며 연신 소리쳐 참새 떼를 쫓는다.

그때, 이곳 신흥동

신흥초등학교

일본인이 자신들의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해 인천에 세운 최초의 학교로 일제강점기 때 학교명은 인천공립고등소학교였다. 1883년에 동본원사 별원에서 아동을 교육한 것이 시초다. 1896년에는 일본 인천영사관 구내에 있던 병원의 병실(1933년 당시의 인천부윤 관사 터)을 개조하여 교실로 사용하기도 했다. 학생수가 1,175명(조선인 17명 포함) 정도로 당시로서는 규모가 큰 학교였다. 6·25 전쟁 중 공산군은 인천지역 의용군을 이 학교로 강제 징집해 전선으로 보냈다.

신일반점

현재 우리나라 중국 음식점 중 가장 고령 현역 주방장은 신흥동 신일반점의 임서액(林書碧)옹이다. 1931년 생으로 중국 산둥(山東)성이 고향인 임 옹은 66년째 신흥동로터리 주변에서 청요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신일반점의 뿌리는 현재의 자리 건너편에 있던 호떡집이었다. 호떡집을 중국집으로 바꾸고 '신흥동에서 제일 맛 좋은 음식점이 되자'는 소망을 담아 '신일반점'이란 간판을 내걸었다. 1978년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10여 년전까지 만해도 돌잔치나 약혼식을 치를 만큼 규모가 큰 연회식을 갖춘 음식점이었다

슬픈 이야기를 품은 해광사와 사이다 공장

큰길을 건너 돌층계를 오르면 '해광사'란 절이 있다. 도심에서 만나기 드문 한적한 사찰이다. 원래 해광사는 1910년에 일본인이 지은 화엄사 절이었다. 그 흔적이 절 입구 돌기둥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1994년에 왜색풍의 절을 헐고 대웅전을 다시 지었다.

대웅전 뒷쪽과 옆쪽에는 오래된 벽돌집 두 채가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 뒤쪽 건물 시왕전이다. 이 건물은 슬픈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곳에는 6·25전쟁 전몰장병들의 유해가 모여져 있다. 얼마 전까지 지하에 있던 것을 1층으로 옮겼다.

"아마 6·25 전쟁 중에 전사한 경기도 출신 장병들을 이리 모신 것 같아요. 유해들은 하나같이 이름은 없고 그냥 김 일병, 박 이병... 그런 식으로 표시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한동안 인천시 차원에서 위령제도 지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다 잊혀진 거죠." 황진스님의 설명이다.

해광사에 오르는 계단 옆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다 공장이 있



新興洞



“아이를 좋아해서 한때 ‘소아과 의사’가 꿈이었어요!”

이제 막 아들 주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왔다는 뮤지컬 배우 손준호 씨.

약속된 인터뷰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그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아내 김소현 씨가 기다리고 있음을 나중에야 알았다.

인사를 건넌 그녀 역시 ‘괜찮다’며 환한 미소를 보낸다. 배려가 몸에 밴 모습에서 따스한 봄 향기가 난다. 이들 부부는 요즘 주안의 동생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란다.

“지금 소현 씨가 배우로서 마리 앙투아네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때’가 있는 거 같아요. 그 사람만을 희생시키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요?”

가족의 행복이 목표인 그다운 말이다.

“과거 김소현 남편으로 살았고, 지금은 주안 아빠로 살고, 언젠가는 ‘손준호’ 이름도 나오겠죠?” 라는 말을 남기고 오늘은 아내와 함께 스케줄이 있는 날이라며 걸어가는 뒷모습도 가슴에 훈훈하게 남는 ‘좋은 사람’이다.

에디터_ 이정희 사진_ 에이엠스토리 제공



Musical actor

손준호

인하대병원 환우를 위해 무대에 오르다!

12월 초, 인하대병원 로비에 ‘지금 이 순간’이 울려 퍼진다. “아마 인하대병원이 일정 첫날이었을 겁니다. 바로 눈앞에 마스크를 한 아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 휠체어에 몸을 실은 아이 등 주안 이랑 같은 또래잖아요. 마음이 울컥해서 노래하기 힘들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해 소아과 의사가 꿈이었다는 그에게 이날 공연은 마음이 더 아팠다. 소아과 의사이신 이모부와 한동네에 산티라 늘 병원에서 놀기를 좋아했고 ‘병을 고쳐주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한때 의사를 꿈꾸었다.

“성악을 전공한 사촌 형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 꿈이 바뀐 거예요. 나도 잘 배우면 성악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갑자기 진로를 바꾼 이들의 말에 부모님은 흔쾌히 응원해주셨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한 것처럼 그 역시도 아들 주안에게 욕심부리지 않고 내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다. 주안이가 무엇이 되면 좋겠냐는 질문을 부쩍 많이 받는다는 그는 이렇게 생각을 전한다.

“기가 빨리 지라는 애가 있을 수 있고, 팔다리가 긴 애가 있을 수 있고 말이 좀 늦게 터지는 아이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집에서 우리 부부가 워낙 대화 액션이 뮤지컬 같다 보니 혹시 주안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주안이가 행복하다면 전 뭐든 좋아요.”

그에게 소중한 것들

오! 마이베이비 방송 중, 아내 김소현 씨가 울음을 터뜨리자 주안 이 흐르록 달려가서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이 있다. 방송을 본 손준호 씨의 어머니는 ‘주안이가 소현이 눈물 닦아주는 거 보니, 너 어렸을 때 같구나.’ 라고 하셨단다.

주안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모습을 찾는 엄마의 행복, 중조할아버지와도 추억을 남긴 주안, 훗날 이모두가 아름다운 시간으로 남길 바라며 지난해 출연을 결심한 그다.

그는 이번 새해는 좀 색다른 분야에서 시작했다.

아내와 함께 세계명작동화를 클래식과 함께 엮은 첫 번째 책을 발간했다. 이들 부부의 실감이 나는 구연동화와 편곡된 모차르트의 음악을 담고 있다. 또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 학대 착한 신고’ 홍보 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 ‘모차르트와 세계명작’의 수익금 일부는 국내 아동권리 보호 사업 및 빈곤 가정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 찡긋 눈감은 미소도 아름다운 달은꼴 가족
/ 성악과 출신의 뮤지컬 배우로 전공, 직업도 같고 미소도 많은 손준호 부부

그리고 꾸준한 무대 활동은 물론 남예종에서 뮤지컬학과 교수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무대에서 받는 박수와 사랑은 언제나 그림고 좋은 순간이고 뮤지컬 실기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무대를 볼 때면 꿈같은 감동이 밀려온단다.

‘스트레스 안받기’가 그의 건강관리 비결

그의 건강비결은 스트레스 안 받기를 우선으로 꼽는다. 그래도 풀어야 한다면 운동을 하거나 특이하게 세차를 한다고!

“차를 워낙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만지면서 화난 감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반짝거리게 닦아야겠다는 생각만 하죠. 차 이름이요? 예전에 만화 주인공 이름으로 한번 해봤는데 오글거려서 관두었어요(웃음).”

농구, 축구, 수영, 테니스, 스케이트, 하키 등 운동은 남들과 어울릴 만큼은 한다는 그는 바빠진 요즘은 사실 정기적인 운동은 못 하고 있다. 그래도 걷는 것을 좋아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면 40분 정도 걷기도 하고 담배는 아예 안 한다.

‘감사’라는 말이 입에 뻐 겹손한 뮤지컬 배우 손준호.

연습 중 힘든 학생들의 전화와 문자에 늦더라도 답해주고 용기를 주는 친구 같은 교수가 되고 싶은 그다. 연상연하 상관없이 아내의 일을 응원해 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남편이다. 그리고 많은 배우가 그렇지만 자신도 관객 입장에서 비용에 대한 후회가 없도록, 아니 몇 배의 감동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무대에서 노력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따뜻한 마음으로 나는 순수 헌혈, 3명의 생명 살려~



학창시절에는 영화표와 봉사시간을 얻기 위해서 했고,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에 누군가 있고
다행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된 사람이라면 서슴지
않는다.
간곡히 헌혈을 부탁한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감기 때문에
달려갈 수 없음에 착잡하다는 10개의 헌혈 증서를 가진
어느 여대생. 이 기분을 누가 알아주겠느냐는 그녀의 애잔함에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시간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글_ 편집부 자료협조_ 채희영 / 혈액은행

가족을 위해 피를 파는 한 남자의 고단한 삶을 그리고 있는 영화
허삼관의 소재가 된 ‘매혈’은 무엇일까?

매혈은 말 그대로 피를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1958년 대한적십
자사가 혈액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 많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직
후 헌혈자가 적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당시는 비위생적인 도구
를 사용해서 간염 감염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매혈이 지금의 순수 헌혈체도로 바뀐 것은 불과 40여년 전의 일이다.
1970년대 들어 ‘헌혈의 집’이 만들어지면서 헌혈자가 조금씩
늘어났고, 정부가 1974년 매혈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지금의 순수 헌혈 형태만 남게 됐다.

아름답고 따뜻한 36.5도의 나눔, 헌혈!

나의 피 400ml로 최소 3명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눔의 행복!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물질도 존
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마 먼 미래조차 만들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은 자발
적인 따뜻한 헌혈뿐인 셈이다.

다양한 헌혈 권장 캠페인 등에 힘입어 헌혈 참여 분위기가 꾸준히
확산되어 56년 만에 국내 연간 헌혈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잘못된 상식과 ‘무서워서, 바빠서, 게을러서,
위험하니까...’ 등등 많은 이유로 망설이게 된다.

헌혈을 하면 빈혈이 생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간혹 헌혈하고 나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
가 있지만, 이는 대부분 헌혈 1시간 전후에 과로, 흡연, 무리한 운
동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헌혈을 하면 주삿바늘 때문에 신경이 손상된다?

헌혈 과정에서 주사기로 인해 신경에 자극이 가해지는 것은 맞지
만, 대개는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또한, 이는 헌혈에 쓰이는 주사
뿐만 아니라 감기 주사, 예방주사와 같이 주사가 사용되는 모든 의
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헌혈용 주사바늘의 경우만 유난
스러운 것은 아니다.

헌혈주기?

400~500ml의 피를 뽑으면 남자는 평균 236mg, 여자는 213mg의 철
분이 소실된다. 식사로 하루에 섭취하는 철은 2.8~6.0mg으로 헌혈
(전혈) 한 번 후 철분을 보충하는 데는 평균 50일 정도가 걸린다.

전혈 헌혈을 두달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다.

적혈구의 주요 성분이기도 한 철분은 인체의 생리기능을 유지하
려면 외부에서 반드시 보충해줘야 한다. 철소관과 혈장은 회복기
간이 짧지만 성분헌혈 간격도 2주일로 제한하고 있다.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헌혈자는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혈 헌혈	성분 헌혈
구분	전혈은 혈액의 모든 성분을 헌혈하는 것	혈액 가운데 일부 성분만을 분리하여 채혈하는 것
채혈 범위	혈액의 구성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전부를 채혈	혈액 구성 성분 중 일부인 채혈 혈소판, 혈장, 혈소판혈장 헌혈의 성분 채혈
헌혈 시간	약 10분 ~ 15분	혈장 : 약 30분~40분 혈소판 · 혈소판혈장 : 약 1시간 ~ 1시간 30분
헌혈 주기	2개월 후 같은 날짜부터 재헌혈 가능 (연 5회까지 가능)	혈소판 성분 헌혈 후 72시간이 지나면 다시 혈소판 헌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연 24회 가능).
사용	총 혈액량의 25% 이상 출혈이 지속 되어 쇼크에 빠질 우려가 있는 환자와 산소 운반기능과 혈액량 확장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게는 전혈을 수혈한다.	성분헌혈로 얻은 성분채집 혈소판은 전혈로부터 성분 분리하여 얻은 혈소판 제제 6~8단위에 해당되는 혈소판을 한명의 헌혈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 6~8명이 헌혈한 혈소판제제를 수혈 하는 것보다 한명의 헌혈자로부터 얻은 성분채집 혈소판을 헌혈하는 것이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게 훨씬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하대병원 헌혈실, 교직원 대상 헌혈캠페인 실시

최근 수년 전부터 인하대병원 혈액은행 헌혈실에서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교직원 대상 헌혈캠페인을 하고 있다. 또한 헌혈증 기부
에도 참여하여 병원수익은 물론 환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국내 헌혈의 경우 20대(39.2%)와 10대(40.5%)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대부분은 학교에 가서 단체헌혈을 받아온다. 그
러나 방학 기간에는 단체헌혈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국내 헌혈자가 연간 300만 명 시대라는 기쁜 소식이 위안이 되지
만 여전히 아쉽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유럽과 일본에서는 중장년
층과 여성 헌혈자가 다수 참여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
양한 이벤트를 통해 헌혈자 계층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급증하는 10대들의 헌혈을 보면서 ‘봉사 4시간, 영화표 1장’을 얻
기 위한 전략으로 된 건 아닌지 씁쓸한 마음도 든다. 한편에서는
현대판 ‘매혈’이 아니냐는 쓴소리도 들리고...

그러나 그렇게까지 필요한 소중한 ‘생명’은 아닌지 또 다른 생각
을 하게 한다. 더 시급한 건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헌혈에
대한 안전한 교육지침은 아닐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헌혈일지라도 한 생명을 살린 좋은 소식에서
‘사랑 나눔’을 할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의 가치를 느낄 수 있
길 소망한다.

10대 의존 헌혈정책도 개선되어 살아 있는 동안 누구나 할 수 있
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나눔 문화’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기도한다.

● 헌혈 문의 : 인하대병원 헌혈실 ☎ 032-890-2514

헌혈할 때, 이것 주의!!! 치과 치료 중, 꼭 알려 주세요~

- 출혈이 없는 부항치료를 받은 경우 당일 헌혈 참여가 가능하며, 일회용 도구를 사
용한 침술과 부항(사혈)치료를 받은 경우는 3일간 헌혈에 참여하실 수 없다.
- 일회용 도구를 사용한 약침(한약재 추출물 주입 : 봉침 포함)을 받은 경우는 7일간
헌혈 금지.
- 헌혈 전에 적어도 72시간 동안은 혈소판 기능을 저하시키는 아스피린 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 복용한 약물의 종류나 기타 건강상태에 따라 헌혈 유보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 치과 치료 중인 경우는 꼭 알려야 한다. 만일 스케일링 중 출혈이 있었다면 3일 경
과 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헌혈자나 수혈자를 보호하기 위함
이다. 사실을 속이거나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헌혈에 참여할 경우 만약 잘못된 혈
액이 환자에게 그대로 수혈될 경우 그 피해는 수혈자가 입게 되어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하도록 하자.

따뜻한 희망의 징표♥ 헌혈증서 이렇게 사용해요~

- 따뜻한 나눔, 헌혈 후에도 우리는 따뜻한 희망의 징표, 유효기간 없는 헌혈 증서를
받게 된다. 헌혈증서는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있으며 유기중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분실하거나 훼손되어도 재발급 되지 않으니 잘 보관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헌혈 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 이 부
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 받
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 입원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
담을 하고 나머지 20%만 본인 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때 헌혈 증서를 제시할 경우
20%를 공제받는 것이다. 따라서 헌혈 증서를 제출할 경우 전액을 공제 받는 것과
같다.



감염 예방관리의 기본은 '손 위생 실천!'



“병원서 이럴 수가... 2차 감염 · 다제내성균 감염환자 증가세”

“항생제 남용 탓에 슈퍼박테리아 감염 급증”

“병원내 2차 감염 관리 부재, 대책 세워야”

이런 헤드라인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 한쪽은 무게감이 느껴지고 몸도 천근만근이다.

“우리 병원은 어떤가요?” 혹은 문의라도 오면 왠지 모를 위축감과 죄책감이 당장이라도 피하고 싶다. 병원에서 중요한 부분인 감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감의 무게가 무겁고, 이상적인 감염관리의 기준은 한참이나 높기 때문이다.

글_ 김수미 / 감염관리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환자안전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에 의료계는 더욱더 바빠지고 있다. 여러 곳에서 병원인증평가를 통해 ‘안전한 병원’이라는 슬로건을 당당하게 내걸기 시작하였다. 인하대 병원은 이미 총 4차례에 걸쳐 국내·외 인증평가를 통과하며 병원 내 안전문화가 정착되었고, 특히 전 직원이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화와 표준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감염관리’라는 용어에 익숙해지면서 ‘감염관리실이 어떤 부서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염관리실의 역할에 대한 직원들의 궁금증은 점차 커져만 갔다.

감염관리실은 의료기관 내 감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임상경험과 감염예방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감염내과 의사와 감염관리간호사들이 감염감시활동, 감염관리 지침마련과 권고, 감염관리 지침실행을 점검, 감염관리위원회 활동을 담당한다. 감염에 노출된 직원의 건강을 관리하고, 병원 내외에서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는 것도 감염관리실의 역할이다. 그중 감염관리실에서 꾸준히 하는 일들 중 감염관리활동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감염감시는 한결같이, 손 위생은 평생 과제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본은 ‘손 위생 실천’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 병원에서는 ‘손 위생’을 인하대병원 전체 지표로 선정하여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염관리실에서는 우리 병원 전체의 손 위생 실천을 꾸준히 감시하고 있다. 2014년 12월의 손 위생 수행률은 83.4%로, 각 부서에서 맞춤형 개선활동을 좀 더 활발히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손 위생은 병원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 함께 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손 위생과 더불어 감염관리실에서 꾸준히 수행하는 감염예방 활동의 하나는 우리 병원 전체에서 분리되고 있는 세균 균주를 주단위로 감염내과와 감시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우리 병원서 세균의 유행 발생의 조짐이 보일 경우, 이를 일찍 발견해서 유행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균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무균술은 완벽하게!

혈류감염(균혈증)은 혈액 속에 들어간 균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인하대병원은 병원 안에서 발생하는 혈류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 내 도관(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무균술을 적용하고 있다. 손 위생을 하고, 일회용 패키지(모자, 마스크, 가운, 대방포)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무균 방어막을 형성한 상태에서 도관을 삽입하고 있다.

감염관리실은 이렇게 무균술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환자 집중치료실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는 혈관 내 도관을 삽입할 때마다 무균술을 완벽하게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단순히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진 개인별로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지속하고, 준수율이 우수한 의료진에게는 매년 병원에서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노력 끝에 2012년 40% 미만의 낮은 준수율이 직원들의 감염관리 인식화와 습관화를 통해 현재 100%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관 삽입과 관련된 혈류 감염이 zero에 가깝게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런 성과는 환자안전에 대한 병원 문화형성이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기투합으로 ‘Clean ICU’가 되다!

2012년 9월 중환자 집중치료실 부서장들과 ‘Clean ICU’를 만들고자 의기투합하였다. 여러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다제내성균을 갖고 있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발견 즉시 격리를 하고, 이런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의료진은 다제내성균이 다른 환자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보호구(일회용 가운과 장갑)를 착용하도록 했다. 의료진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과다 업무이었기에 가운, 장갑을 추가로 입고 벗는 시간이 야속했고, 특히 고온다습한 날씨엔 답답한 가운, 장갑을 찢어 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는 되는 어려운 과정이었다. 매일 환자 주변을 환경 소독제로 닦고, 환자 목욕 횟수도 2배로 늘리고, 손의 피부가 갈라지고 따끔거리는 고통까지 참아가며 손 위생을 지속하였다.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제내성균이 생기는 경우에는 쏟아지는 허탈감에 힘들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3년이 넘도록 지속한 의료진의 노력 끝에 중환자 집중치료실 내에서 다제내성 황색포도알균 균혈증 발생을 단 한 건도 허락하지 않게 되었다.

환자가 안전한 최고의 병원이 되기 위해 인하대병원은

- 최신 감염관리에 대한 근거 있는 지침을 적극 수용하고,
- 감염관리 보다는 감염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 전 직원은 모든 진료나 치료과정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안전 지침을 준수하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다.

환자안전의 날 행사 “감염관리 미션수행” 이모저모



미션수행 특별 출연상 (동12)



외래 내원객과 함께 손위생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선생님도, 간호사 선생님도 모두모두 손위생~~ (동15)



인턴 선생님도 손 위생 함께해요~ (EMC)

서 병동 826호실은 꿈을 심어주는 희망의 산실



백혈병을 앓았던 제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오늘 1박 2일로 파주 '유일레저타운'에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인하대병원 소아암, 백혈병 환우와 환우 가족들을 비롯하여 경인지역 4개 병원 환우 가족들이 연합캠프에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백혈병소아암 협회 경인지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제가 어린 환우들을 돌보고 행사를 보조하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엔 68시간 교내·외 봉사활동을 했으며, 지금도 학급 환경부장을 맡아 교실과 주변 환경정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용돈을 절약하여 저개발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한국 unicef를 통해 매달 3만 원씩 후원하면서 백혈병 후원회에도 1만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제가 봉사활동을 다닐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사실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돌봐주신 김순기 교수님과 의사 선생님들, 저의 케모포트를 관리해 주시었던 강희숙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826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통하여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인하대병원으로 오다

2009년 7월 23일 서 병동 826호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서울대 병원에서 모든 기록물을 발급받아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5월말 다리가 참기 힘들 정도로 너무 아파서 부천 순천향병원 응급실에 들렸다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곧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차 관해 치료*가 끝나고 항암치료를 하는데 서울대병원은 중환자들이 너무 많고 병실이 부족해 입원해서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새벽에 출발하여 항암주사를 맞고 몇 시간 침대에 누워 회복한다

음 집에 돌아오는 '당일입원'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왕복하는 일이 힘들어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월세방을 얻어보려고 부동산중개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너무 힘들다면서 가까운 병원으로 갈수 없느냐고 했더니 인하대병원 김순기 교수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항암제의 거부반응 때문에 한국희귀약품센터에서 비급여 수입약품인 온케스파를 사서 치료받았습니다. 환율상승 여파로 1회 주사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나중에는 온케스파 재고가 없어서 엘아스파를 대신 구입하여 맞기도 하였습니다. 면역력이 약하여 대상포진으로 1인실에 격리치료도 받았으며, 항암제 부작용으로 망막이 터져 실명 위기도 있었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골수검사 7번, 척수검사 29번의 아픈 치료과정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평소 귀하게 자란 집안의 종손인 저에게 모든 치료과정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면서 병원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1인실에 입원해 있으면 교수님은 826호실로 입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의 병원비를 줄여주려는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 제가 암살이 많아서 주사를 맞으려면 10분 이상 씨름할 때도 있었습니다. 업무가 바쁘실 텐데도 참고 기다려 주신 간호사 선생님, 입맛이 없다고 무균식을 먹지 않고 있으면 과일이나 음료를 나눠 먹던 이웃 환우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식사를 주시는 아주머니도 친이모처럼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몸이 허약하여 입원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치료도 문제였지만 학교생활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매일 죽기 살기로 공부해도 부족한데 병원에서 병마와 씨름하고 있었으니 저의 미래가 캄캄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저의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

모님은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라고 외국에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 1개월 여행을 했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영국 어학연수 4주와 필리핀 어학연수 8주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유럽, 호주, 중국, 일본, 동남아 여행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스카우트 단장으로서 심신을 수련하는 일에 스카우트대원들을 돌보며 솔선수범했습니다. 검도 학원을 다니며 해동검도 1단을 취득했습니다. 학교 야구부 입단하여 전국소년체전 준우승도 했습니다. 야망과 꿈이 많았던 소년은 감당하기 벅찬 병으로 모든 희망이 멈추어버렸습니다.

인천 유일 '어린이병원학교'가 있습니다!

826호실에서 치료하는 대부분의 환우들에게 학업을 지속하는 일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병원에 어린이병원학교가 있습니다. 학령기에 있는 환자가 2~3년 이상 장기간 입원 치료할 경우 환자의 상태나 수업가능 여부에 따라 매일 1시간 이상 수업을 받으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병원학교를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사이버학교에서 수업 받으면 됩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는 학교 양호실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제가 입원해있으면 담임선생님께서 병원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실 수 없어서 826호 앞에 있는 휴게실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중학교 내내 학교수업을 받을 수 없었지만, 병원학교의 꾸준한 수업 덕분에 시험을 보면 중상위권에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건강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마칠 무렵인 2013년 10월 치료 종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하대병원 어린이병원학교가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병원학교에 다녀도 출석을 인정받아 졸업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는 교칙과 학칙에 의해서 수업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저는 원래 과학고등학교를 거쳐서 KAIST에 입학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턴 중학교 3학년까지 4년간 병마와 씨름하느라 정규수업을 못 받았습니다. 냉철한 현실의 벽은 저의 꿈을 수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아버지에게 서울로봇고등학교를 입학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서울로 입학하게 되면 병원 치료가 힘들다면서 인천에 있는 부평공업고등학교에 로보테크과가 있는데 어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네 정거장으로 가까워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입학하기 힘들 것이며, 일반계 고등학교도 밤늦게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면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짐도 덜어주고, 저의 학업부담도 줄여서 부평공고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과학자의 꿈은 뒤로 미루고 훌륭한 기술자가 되려고 합니다. 작년 3월 입

학식 날 기쁨 반 걱정 반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3~4월에 결근 2회 조퇴 13회를 하였습니다. 치료 종결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회복이 덜 된 이유 때문입니다. 아프기 전에 체중 44kg에서 4년이 지난 작년엔 저의 체중은 42kg으로 오히려 살이 빠졌지만,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는 결근뿐 아니라 지각, 조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외래도 토요일에 맞추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1학년 2학기에는 거의 모든 과목이 1등급씩 향상되었습니다. 2학년 1학기에는 5개 과목에서 1등을 하였고, 전공과목은 전부 1등입니다. 영어, 수학, 과학은 기초 실력이 부족하여 1등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엔 전과목 1등을 목표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내·외 각종 경진대회 참여하여 좋은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1학년 때 과학경진대회 포스터 최우수상 등 8개를 받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1회 희귀난치병 투병 간병 수기 공모에 응모하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학년 올라와서도 '휴먼예방 글짓기'에서 인천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상을 받는 등 교내·외 상 10개를 수상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자격 ITQ를 취득하였으며, 전자CAD 기능사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실기시험 준비 중입니다. 공기압기능사 등 졸업할 때까지 5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인하대병원의 건강우선 경영철학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학생으로 학교생활을 하기까지 인하대병원의 선진화된 시스템과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경영철학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교수님, 환우의 마음까지 보살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 인천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어린이병원학교가 있었기에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 환우들이 서병동 826호실에서 아름다운 장래를 설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금은 저에게 미래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한 덕분에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에 수월하게 취직할 수 있습니다. 동일계 시험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도 회복되고 실력도 늘면서 보통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공부를 계속하여 과학자가 되는 희망도 꿈꾸어 봅니다.

인하대병원 서병동 826호실은 소아암이나 난치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환우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꿈을 심어주는 희망의 산실입니다.

*관해 치료 : 항암제 투여 후 혈액과 골수 내에 백혈병 세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함(편집자 주)

2014 INHA Happy Plus

“나누면
따뜻해진다”



“나누면 따뜻해진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하대병원의 “Happy Plus”
활동을 통해 인하대병원의 나눔 문화
전파를 하고 있다.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눔의 정을
실현하며 우리의 이웃과 따뜻한 겨울
을 보내기 위한 예쁜 행사를
진행하였다.

글 김시현 과장 / 공공의료사업지원단

1
나눔 1 | 12월 1일
전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과 함께하는
‘뛰어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눔 강연과 포토타임



2
나눔 2 | 12월 16일~19일(4일간)
사랑의 도서나눔기
모금액 불우 환우 지원



3
나눔 3 | 12월 16일
성탄절 이벤트 하얏트리젠시 호텔
봉사단과 함께
쿠키 만들기, 구연동화, 풍선아트,
선물 증정



4
나눔 4 | 12월 22일~31일
행복 사진 찍어주기
예쁜 사진에 행복과 추억을
담았습니다.



5
나눔 5 | 12월 13일
사랑의 연탄나눔 지역봉사
학익동 산동네 연탄 2,000장
주역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인하대병원의 공공의료 사업지원
단은 인간존중과 공존공영의 정신
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 문화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미션 아
래 송준호 교수(신장내과)를 단장
으로 2014년 3월 1일 발족했다.
공적 사회공헌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봉사, 국내·외 의료지원,
민·관협력사업 등이 있으며 지역
사회봉사는 공개강좌 및 교육 그리
고 직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의
료사회복지 사업이 있다.
공공의료 사업지원단에서는 기존
에 실천하던 모든 활동을 유지하면
서 공공의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지는 세상,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소중하고 행복
한 경험을 인하대병원의 모두와 나
누고 싶다.

2015년 1~2월 나눔 계획

- 암환자 후원**
저소득층 대상 사이버나이프 &
레피드마크 수술 지원 (2명)
- 무료수술 지원**
시설 아동2명 지원 : 인천교통방송
특집프로그램 “사랑으로
함께 해요”
- 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연수구 어린이집 폭행 사건
- 청소년 나눔학교(Sharing
School) 운영**
2.9 ~ 2.13

6
나눔 6 | 12월 20일, 27일
남구 우각로 문화마을
‘벽화 그리기’
트레킹 동호회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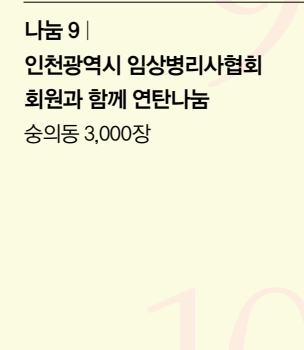
7
나눔 7 |
무료초청수술
‘지구촌 한가족 캠페인’
우즈베키스탄 환자 2명



8
나눔 8 |
지역 기관 협력 러시아 한인 동포
치료지원



9
나눔 9 |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협회
회원과 함께 연탄나눔
승의동 3,000장



10
나눔 10 |
SK 와이번스 팬 사인회



양성 전립선 비대증 발기부전, 요로감염, 방광결석 등의 합병증을 유발

Q 양성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을 먹게 되나요?

A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50세 남성의 약 50% 정도에서 발생하며, 나이가 들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관이 좁아지게 되고, 그 증상으로는 소변의 흐름이 감소하고, 자주 마렵고, 소변을 본 후에 잔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 배출과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에 변화를 일으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요로감염, 방광결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보다트, 프로스카처럼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약물과 발기부전 치료제로 많이 알려진 시알리스와 같은 알파차단제처럼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배출을 도와주는 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약을 선택할 때는 증상의 심각도, 전립선의 크기,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는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약물과, 알파차단제를 동시에 복용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복용할 때보다 치료효과는 좋습니다. 두 가지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 치료 시작 6~9개월 후에는 알파차단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Q 양성 전립선 비대증 약 복용 시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약품명	주의사항	약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
하이트린 카두라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저녁 시간에 복용. 이외에 심장 두근거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3~5일
자트랄 트루패스 하루날	기립성 저혈압의 부작용은 적으나, 역행성 사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6~9개월 이내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 투여 주의 *하루날: 설파제 부작용 환자 주의	3~5일
시알리스	Nitrate 제제 복용환자 금기 알파차단제와 같이 복용할 경우 저혈압 위험 증가	전립선 비대증: 2주 이내 발기부전: 30분 이내
아보다트 프로스카	발기부전, 역행성 사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여성, 어린이 복용 금기	4~6개월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함)

Q 감기약을 먹어도 되나요?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마약성 진통제, 우울증약, 항히스타민제, 쿨물약, 이노제 등은 소변배출을 어렵게 하거나, 야간에 소변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약사나 의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수분의 섭취를 제한하고, 카페인 함유 음료나 술을 삼가합니다.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2002년 개원한 다정한내과 함정식 원장을 다시 찾았다.

12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은 마인드로 진료를 본다.

진료실 밖으로 들려오는 환자를 맞는 반가운 인사 소리가 그렇고, 진료시간이 넉넉한 것을 보니

여전히 변함없음이 짐작된다. 진료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대기실 누구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다.

다정한내과는 지역 공동체처럼 함께 하는 의원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병원보다 가장 먼저 찾아가 의논할 수 있는 병원으로!!



다정한내과
함정식 원장

'추천하는 의원'이라는 말 들을 때 뿌듯!

"각종 최신 의료장비의 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게 되었어요. 처음 이 지역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의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뿌듯한 성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죠."

그러나 또 아쉬움이 더 기억에 남는다는 함 원장은 위내시경 중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병변의 조직 검사를 했는데 자신과 환자 모두 잊고 지내다 8개월 만에 다시 불편함에 찾아온 환자 이야기를 시작한다. 당시 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위암. 환자와 보호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전한다.

다행히 인하대병원에서 적절한 수술 치료 결과 진행하지 않은 조기위암이어서 항암제 치료 없이 완치되었다. 이 일 이후 아주 작은 병변일지라도 신경써서 확인하고 직원 전체에게 조직검사 해석능력 교육은 물론 바로 환자분께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재 정비하였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말하는 함 원장, 여전히 그를 찾는 지역 주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매력 아닐까?

질병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원으로!

환자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지만 작은 증상부터 심각한 질병까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원으로 희망하는 함 원장이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격려하는 마음이 함 원장에게 더없이 큰 버팀목이 된다. 그리고 가까이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인하대 병원이 있다는 것도 큰 힘이 된다고 전한다.

패기 넘친 장년기에 개원하여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다정한내과의 함 원장도 어느덧 중년이다. 환자를 대할 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겸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직도 성장 중인 '미완의 내과 의사' 라고 자신을 말하는 함정식 원장, 잘 버티는 완생의 길로 오늘도 한걸음 내딛는다.

◆ 인천시 남구 용현동 ☎ 032-888-9003



1 함 원장과 함께 하는 직원들 역시 환자를 배려하는 친절은 기본이다.

인하대병원, 인천지역 최초 2회 연속 의료기관 인증 획득

글로벌 환자안전시스템의 탄탄한 기반 바탕, 강화된 평가 기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



인하대병원(원장 김영모)은 1월 7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지난 2011년 1월 1주기 인증에 이어, 인천지역 최초 2주기 상급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글로벌 환자안전시스템의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환자안전과 한층 발전된 양질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2주기 인증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인하대병원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보건복지부 주관 2주기 의료기관인증 평가를 받았으며, 환자와 직원 안전을 중심으로 1주기 인증 때 보다 한층 강화된 국제적 수준의 평가기준을 적용, 병원 안전시스템의 전반을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인하대병원

은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지표관리와 진료지침 개발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으며, 환자안전 문화가 병원 전체에 잘 정착돼 타 의료기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에 노력해 온 진정성을 인정 받았다.

김영모 원장은 “더욱 강화된 인증기준이 적용되었지만 JCI 2회 연속 인증과 1주기 의료기관 인증 역량, 그리고 전 교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쾌거를 이루었다”며 “인하대병원은 인천의 중심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재인증 획득을 발판삼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환자중심의 의료문화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은 국제의료기관평가 JCI 2회 연속 인증, 의료기관인증평가 2회 연속 인증, 그리고 3월 중순경 완공 예정인 인천권역심뇌혈관센터 증축을 통해 인천지역 중심 의료기관으로의 명성을 이어갈 것이다.

인하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및 지정서 수여



지난 2014년 12월 23일, 인하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되어 세종시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전국 총 43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었으며 적용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서 인력, 시설, 장비 뿐만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 환

자의 구성상태를 평가한다. 본원은 개원 후 계속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인하대병원, 대장암·폐암·유방암 1등급 의료기관 인증

인하대병원(원장 김영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4년도 대장암, 유방암, 폐암 적정성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대장암, 폐암,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심사평가원에서 전국 100~200여 개 의료기관의 2013년도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하대병원 대장암은 3년 연속, 유방암은 2년 연속 20개 이상의 까다로운 평가기준을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매년 1등급을 받고 있으며 급성기 뇌졸중은 5회 연속 1등급, 급성심근경색증도 지난해 1등급을 받아 지역사회 암(癌) 및 심뇌혈관

질환 치료의 중심병원임을 입증했다. 또한, 심평원 주최의 의료기관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초기 증상 공익광고 지하철 승차장 송출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권역센터 인지도 향상 및 질환 초기 증상 홍보를 목적으로 ‘심근경색증, 뇌졸중’의 초기 증상 홍보동영상(30초)을 인천계양체육관(대한항공 배구단 홈경

기장), 1호선 부평역, 인천지하철 부평구청역(하행선) 승강장 LCD의 공익광고 송출을 진행한다.

인하대병원,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러시아 한인 동포 치료비 지원



인하대병원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사회복지기금과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힘든 러시아 한인 동포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김영선 씨(45,남)는 러시아 교포 2세로, 사할린 현지 아동교육시설에서 유도를 가르치던 중 갑작스런 발열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신장결석이 발견되었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절제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국내로 들어와 인하대병원을 찾게 됐다.

주치의 비뇨기과 윤상민 교수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신장을 절제하지 않고 결석을 제거할 수 있었다”며 “특히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비로 인해 걱정이 컸는데 인하대병원과 논현감리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무사히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수급관리 표본조사 지정기관 현판식 성료



2014년 12월 29일, 인하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보건복지부 지정 혈액수급관리 기관 지정 현판식을 실시했다. 혈액수급관리 표본감시체계란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 재고량 등 혈액 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혈액부족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신설된 혈액관리료를 통해 연간 1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인하대병원 [2014 한·러 보건의료협력 연구 수료식 성료]



2014년 11월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주관 인하대병원이 위탁 운영한 “2014 한·러 보건의료협력연구” 프로그램 수료식을 실시했다. 러시아 부랴트 공화국에서 건너온 3명의 의사는 각각 신경외과, 소화기내과, 이비인후과에서 2개월의 연수과정을 무사히 끝마쳤다.

신경외과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안드레이 연수생은 “이번 연수 프로그램으로 인하대병원의 선진기술과 한국 문화를 경험 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으며 친절히 지도해주신 김은영 교수님 이하 모든 교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으로 표준치료 항암제의 효과 예측한다

[인하대병원 폐암센터 류정선 교수, 대한폐암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연구상 수상] 2014년 11월 21일,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 폐암센터 류정선 교수(호흡기내과)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대한폐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류정선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DNA 손상반응-세포주기 관련 유전자변이와 플라티늄 복합항암화학 치료 효과’를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위 연구 결과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통해

DNA 손상반응-세포주기 관련 모든 유전자를 탐색하여, 현재 폐암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는 표준치료 항암제(플라티늄 복합항암화학치료)의 효과 예측용 유전자를 발굴하여 의학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정형외과 문경호 교수, 대한고관절학회 학회장 선출

2014년 11월 28일, 서울 삼성의료원 강당에서 개최된 대한고관절학회 정기 총회에서 정형외과 문경호 교수가 제29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임기는 1년이다.



성형외과 황 건 교수,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황 건 교수가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출됐다. 황 건 교수는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의학대학원(석사·박사)을 졸업하고 현재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과장 겸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진단검사의학과 김철민 팀장 ‘대한임상병리사 인천시협회 “제16대 회장 선출’

진단검사의학과 김철민 팀장이 2015년 1월 16일 실시한 대한임상병리사 인천광역시회 제3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3년 동안 1,100명 회원의 수장으로 인천시병리사회를 이끌게 되었다. 또한 진단검사의학과 전미선대위원이 그간 보수교육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협회 우수회원상을 수상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인하대병원 소식

2014.12.8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협약식



2014.12.19 크리스마스 칸타타



2014.12.19 중동지역 팸투어



2014.12.29 재활의학과 송년의 밤 "장애를 넘어 재활의 희망과 함께"



2014.12.23 암환자 모자/머플러 나눠주기



2015.1.2 시무식



2015.1.17 외과 인하컨소시엄 워크숍



2015.1.20 일우재단 몽골의사연수 수료식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명칭의

2014.12.9



출연: 신경과 나정호 교수
프로그램: 메디칼TV 건강나눔 공개강좌

내용: 뇌졸중

2014.12.10



출연: 심뇌혈관질환센터 의료진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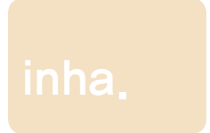
내용: 뇌졸중, 시간이 생명이다

2014.12.22 ~ 2014.12



출연: 심장내과 우성일 교수
프로그램: OBS TV 주치의
내용: 5가지 심혈관질환의 이해

2014.12.24 ~ 2015.6.9



출연: 심뇌혈관질환센터 의료진
프로그램: 경인방송 라디오
공익캠페인

내용: 심뇌혈관질환 예방

2014.11.24 ~ 2014.12.22



출연: 피부과 변지원 교수
프로그램: 티브로드 인천방송 건강과 생활

내용: 4가지 피부질환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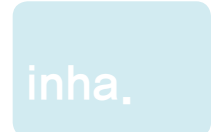
2014.12.1



출연: 피부과 신정현 교수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추홀매거진

내용: 피부건선

2015.1.4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중환 교수
프로그램: 경인방송 라디오 뉴스

내용: 미세먼지와 폐질환

2015.1.8



출연: 비뇨기과 윤상민 교수
프로그램: 티브로드 인천방송

내용: 사할린 동포 신장수술 (미담사례)

2015.1.14



출연: 피부과 최광성 교수
프로그램: OBS 뉴스&이슈

내용: 겨울철 더 심해지는 탈모 증상과 치료법은?

2015.1.15



출연: 외과 허윤성 교수
프로그램: KBS 1라디오

내용: 라디오주치의 이춘현입니다

2015.1.15



출연: 신경과 나정호 교수
프로그램: SBS 생방송 투데이

내용: 뇌졸중 자기진단법과 뇌혈관 건강법 소개

2015.1.19



출연: 피부과 변지원 교수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추홀매거진

내용: 피부건선

2015.1.19



출연: 신경과 최성해 교수
프로그램: MBC 이브닝 뉴스

내용: 노인성 치매관련 연구 조사결과 인용

2015.1.24



출연: 당뇨내분비센터 한주영 전문의
프로그램: KBS 사랑의 가족

내용: 갑상선암 환자 수술 후 상태 및 치료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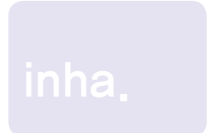
2015.1.28



출연: 소아청소년과 김동현 교수
프로그램: 메디칼TV 뉴스 이슈파워

내용: 노로바이러스

2015.1.29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중환 교수
프로그램: KBS 2TV

내용: 마스크팩 속 보존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15.2.2 ~ 2015.2.8



출연: 피부과 신정현 교수
프로그램: SBS 라디오 1분 건강칼럼

내용: 7가지 피부질환 관련 의학상식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3월 11일(수), 4월 9일(목) 오후2시 ~ 4시30분	3층 1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 환자 교육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출수달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암환자 음악 요법	암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 - 희망하시는 분은 암진료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층 1 세미나실	

건강공개강좌 안내

강좌 일정	제목	강사	장소
2015. 03. 12 오후 3시	여성질환	산부인과 송은섭 교수	신세계 아카데미
2015. 03. 17 오후 3시	손발저림 및 통증의 원인	마취통증의학과 차영덕교수	신세계 아카데미
2015. 04. 02 오후 3시	만성질환 고혈압 다스리는 법	심장내과 우성일교수	신세계 아카데미

●문의 : 공공의료사업지원단 ☎ 032-890-2874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회 공연 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단체 / 작가	장소
2015. 4. 3 ~ 4. 24	사진전	김기현	2층 갤러리

●문의 : 홍보팀 ☎ 032-890-2603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랑새 소식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행사 공지

■ 지난 행사



2014년 11월 13일 포천수목원 아우회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준비하여 환우 30여 명이 포천 수목원으로 힐링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걱정이었지만 떠난 여행이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맑은 공기 마시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날려 버릴 수 있는 힐링여행이었습니다.

■ 다음 행사

- 2월 10일 : 파랑새 정기총회 2시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3월 : 지역구모임
- 4월 : 봄 아우회 (날짜와 시간 추후 공지예정)

* 교육 일정은 건강교실 안내 참조



2014년 12월 11일 유방암 환우 송년 모임

연수동 광장프라자 12층 나우베베에서 파랑새환우 및 가족분들이 모여서 즐겁고 뜻깊은 송년파티를 가졌습니다. 연습과 연습을 거듭하여 준비한 지역구 마다 노래와 춤 등 장기자랑을 뽐내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 올미년 양피해에는 나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보고 배려하며 나누는 한 해로 활기차게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 ▶ 홈페이지 www.inha.com > 여성암센터
- ▶ 카페 cale.daum.net / inbluebird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김형길 관계숙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08:30~09:30 서비스진료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김용성 남문석 홍성빈 김소현	* 갑상선, 당뇨병, 비만	월, 화	월, 목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화, 목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화, 금	수					월, 수				
			* 해외연수(2014, 8.1~2015, 7.31)											
외과	신석환 허윤석	* 위암, 소화기외과	월, 목	월		외과 (여성암센터)	조영업 김세중 최윤미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부신종양	월, 화, 목	(화, 목)	*13:30~15:30 서비스진료			
		* 위, 위암, 소화기외과		화, 목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종양내과	김철수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이비인후과	임재열 최정석	* 갑상선,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목	화, 목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목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현인영 김현정 김우철	*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화, 목, 금	화, 목, 금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김형길 관계숙 방병욱	* 대장암, 위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08:30~09:30 서비스진료	유방암	외과 (여성암센터)	조영업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화, 목)	*13:30~15:30 서비스진료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월									
	외과	김경래 최선근	* 대장항문질환, 소화기외과	월, 수	수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김현정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 대장항문질환, 소화기외과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목	성형외과	김연수	* 유방재건, 유방성형, 미용수술, 미세수술, 피부형이제거	수, 금	(목), 금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간암	소화기내과	김영수 이진우 진영주	* 간암클리닉, 간질환, 위내시경	월, 수, 목	목		부인암	산부인과	이병익 송은섭	* 중앙학, 불인, 폐경기	수, 목, 금	월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화, 수, 목	목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월	화, 수, 금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외과		이건영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철수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목	비뇨기과	비뇨기과	박원희 윤상민 성도환	* 중앙,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화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췌·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동행 정 석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김현정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담도확장질환, 위내시경	월, 금	화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외과	이건영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목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목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임재열 최정석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장애, 두경부종양, 무통증도수술, 소아비인후과, 갑상선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목	화,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곽승민 류정선 남해성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목, (금)	월, 수(2주), 금	() : 주별 진료	정신재로 클리닉 임파부종 클리닉 피부암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김명욱 최광성 신정현	*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월, 화, 금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수), 금	수, 목(1,3주)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목), (월), 목	월, 수, 목(1,3주)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수, 금	(화), (금)									
	흉부외과	김정택 윤용한 김영삼	* 폐질환, 심장, 혈관, 정맥류	월, 목	월		피부암	변지원	여드름, 피부노화, 피부양성종양, 피부미용외과, 피부과 전반적인 질환	목	월, 금			
			* 폐격동, 식도, 다한증, 기흉, 흉곽기형	(화)	(화), (목)									
			* 폐질환, 심장, 혈관, 정맥류	(수)	수, (금)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방사선종양학과	이현규 김우철 김현정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임주한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흉부 관련암	흉부외과	김정택 윤용한 김영삼	* 폐질환, 심장, 혈관, 정맥류	월, 목	월	비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박현선	* 뇌, 척추, 안구, 내비강, 내장, 안면, 신경, 생식기종양, 뇌종양(사이베니피, 뇌암, 전이성종양, 뇌종양, 뇌종양, 안면경관, 정맥혈관종양,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목	수	▲뇌종양, 안면경관종, 삼차신경클리닉		
			* 폐격동, 식도, 다한증, 기흉, 흉곽기형	(화)	(화), (목)									
			* 폐질환, 심장, 혈관, 정맥류	(수)	수, (금)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목	척추종양 방사선종양학과	윤승환 김우철 김현정	* 척추종양(사이베니피), 척추, 척추 디스크질환	화, 목	화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혈액암	혈액내과	김철수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강준수 이동주	* 골종양, 인공관절질환, 관절염, 관절염	월, 수	월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김우철 김현정	*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화	종양내과	김철수 임주한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목						

병·의원 간 원활한 진료전달 체계 구축 환자와 함께 인하대병원 IRC 홈페이지의 사진 보며 설명 가능!



다정한내과

함정식 원장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센터 IRC 홈페이지 리뉴얼 이후 크게 달라진 건 검사 결과 화면을 직접 조회할 수 있고 투약 내용까지 알 수 있게 된 점입니다. 특히 내시경의 경우에는 다시 내원 하신 환자분과 직접 인하대병원 IR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PACS 영상사진을 보며 설명할 수 있어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만성질환자를 다루는 내과 개원의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시간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발생 시 지금까지 인하대병원으로 전원 의뢰한 환자 모두 신속한 처치를 받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기억에 남는 경우는 단순한 두통으로 내원하여 뇌출혈을 보였던 환자 그리고 또 다른 뇌동맥류 환자가 응급실 전원 후 완치된 경우입니다. 다양한 전원 환자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응급상황에서의 치료 성과가 가장 극적인 만큼 응급환자 전원내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전원환자의 되의뢰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또한 환자분 스스로 피드백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의료 전달 시스템에 대한 환자와 개원의 그리고 인하대병원의 인식이 좋아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합리적 의료 전달 시스템이 정착되면 환자와 의사의 신뢰도, 개원의와 종합병원이 상생하여 비용효과 등에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말씀드리면 환자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고 환자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셔서 환자의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기대해 봅니다.

진료협력센터 IRC 홈페이지 안내

IRC(Inha Referral System) 접속 경로

1. 인하대병원(<http://www.inha.com>) 검색 → 진료협력센터로 이동
2.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센터(<http://www.inha.com/irc>) 검색

IRC 주요 기능

- Web - 진료의뢰 예약 신청
- 진료의뢰 환자 결과 및 PACS 영상 조회
- 전원(Transfer Out) 환자 결과 및 PACS 영상 조회
- 진료인원을 위한 일요일 검진 안내 및 신청
- 협력제결 신청
- 외래교수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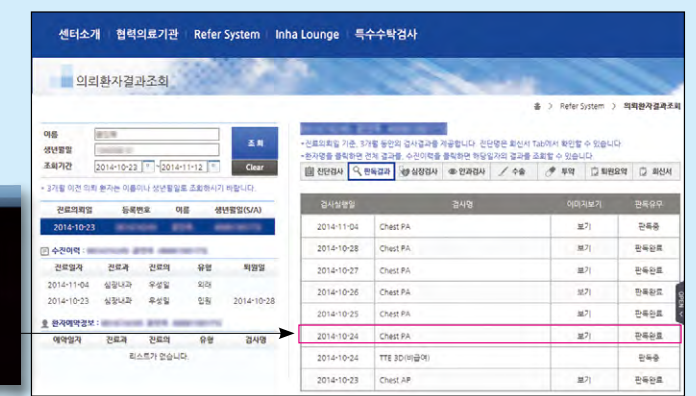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센터

IRC 둘러보기

Main Page



진료의뢰환자 결과조회 및 PACS



OPEN

2015년 3월 16일 진료시작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증축 개소!!

당신의 소중한 생명, **골든타임**을 지킵니다!



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 모바일 홈페이지 <http://m.inha.com>
인하대병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inhapr>



보건복지부
재인증획득



국제의료기관
재인증획득



신뢰받는 병원으로
착한브랜드



포브스
사회공헌대상